

창의적 R&D 활성화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설립

글 | 박항식 _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관 parkhs@mest.go.kr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구 과학기술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 과학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그리고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 선진화 병행

우리나라의 기술능력이 향상되고,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연구개발도 모방·개량 위주에서 변화하여 창의성이 강조되는 기초·원천 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부 연구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부와 과기부가 분리되어 있던 과거에는 과학재단의 기초과학연구사업과 학술진흥재단의 이공계분야 학술연구조성사업과 같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 운영되거나, 사업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연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고, 연구지원 및 기관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또한 양 기관에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연구자들도 상이한 규정에 따라 양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과부 산하의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 설립은 단순히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물리적 통

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지원체제 일원화와 연구관리 전문성의 제고, 일선연구자의 편의성 향상, 학문·연구분야간 교류와 융합연구 촉진 등 연구지원시스템 선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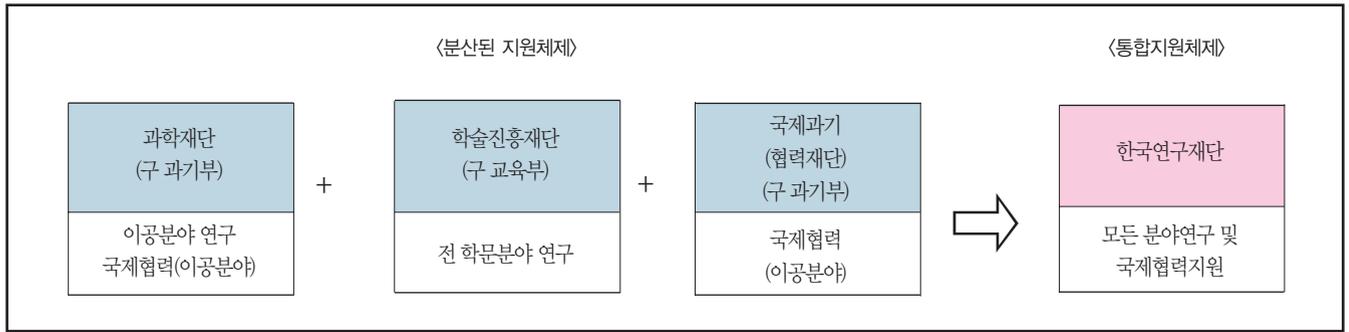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연구관리전문가(PM)제도 선진화를 병행하여 지금까지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단장(PM)이 정부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및 과제를 단순 관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연구재단의 PM들이 위탁사업을 더욱 전문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PM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새로 개편·운영되고 있는 개인 소규모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연구지원사업의 경우 PM들이 직접 분야별 연구비 배분 방안을 마련하는 등 PM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이에 걸맞은 책임성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PM제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우수 PM 영입을 위하여 PM의 근무형태를 기존의 상근 또는 비상근에서 다양화하여 주 3~4일만 재단에 와서 근무를 하고, 1~2일은 원소속기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상근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험에 몰두하는 연구원들

연립포토



국회에서 '한국연구재단법' 통과 시 6월 출범 예정

교과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관계부처협의·공청회·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과정을 거쳐 '한국연구재단법안'을 10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공청회(2009. 1. 9)와 이상민 의원 주최의 토론회(2009. 2. 4) 등을 통하여 이번 임시국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3 이상이 통합의 필요성에 긍정하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 조사에 나타난 의견을 연구재단 조직설계와 운영방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한국연구재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까지 동법시행령과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6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중에는 한국연구재단 출범을 기념하여 국제심포지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설립이 늦어지는 것이 일선의 연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당초 일정대로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간 역할을 분담하여 지난 1월 23일 사업을 공고하였고, 2월 16~27일 중 과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평가를 거쳐 늦어도 5월 초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과부는 R&D사업 약 2조7천억 원을 관리하여 이공분야와 인문사회분야를 아울러 1만여 과제 이상을 지원하는 거대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공계 연구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추진하고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하며, 미래사회에 대비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법제연구의 수행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월 4일 열린 바람직한 연구재단법 입법방향 토론회

가 함께 고려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연구재단 설립이 이미 추진된 연구사업 개편·정비, 연구관리제도 개선 시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기초연구사업 운영 효율화 등 구체적인 정책효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ST**



글쓴이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영국 서섹스대학교에서 산업개발학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 후 과기처 행정사무관, 연구관리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과기부 과학기술기반국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등 요직을 거쳤다.